종단 위기서 개혁 고수한 '혜암 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논집서 재평가

선사상과 수행법 재고찰
조사선서 직입체득 설해
임종때까지도 정진 강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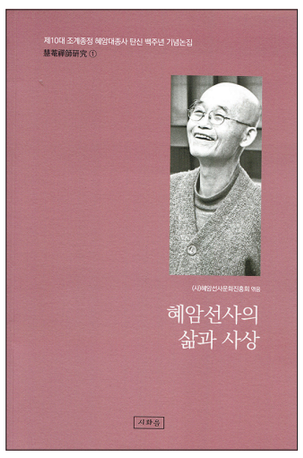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정진의 가르침을 남긴 조계종 10대 종정 혜암 스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 논집이 발간됐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가 펴낸 '혜암선사의 삶과 사상'에는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학술토론회에서 나온 혜암 스님의 사상과 정신에 대한 불교학자 9명의 연구 발표와 12명의 토론이 담겨 있다.

혜암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기념 논집은 선사상과 수행법, 한국 불교계 내 그의 위상 등 혜암 스님에 관한 불교 전문가들의 연구를 면밀히 살필 수 있다.

오경후 동국대 조교수는 '한국현대 불교의 동향과 혜암성관의 수행과 교화'에서 "혜암 스님은 한국근현대사의 상징적 존재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특히 1994년과 1998년 종단의 비법을 초래한 사태에 대한 개혁불사 당시 혜암은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청정계를 수호하여 정진하라'는 스승 인곡의 경책과 정법안장 수호를 위한 신념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또 오 교수는 "1947년 봉암사 결사는 그의 수행정신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던 계기가 됐다. 발우와 옷을 바꾸고 산신각과 칠성각을 없앴던 결사는 정법을 확립해 잃어버린 한국불교 정통성을 다시 세웠다"며 "이후 '공부하다 죽어라'는 가르침으로 임종할 때까지도 후학들에게 참선을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논문에서는 혜암 스님의 사상과 수행에 대해서도 논해졌다.

부산대 석좌교수 여연 스님은 '가야산의 대쪽, 혜암성관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발제에서 "혜암 스님은 수행에 있어 무엇보다 체증을 강조했다. 이론이나 알음이 아니라 몸소 직접 체득해야 하며 그래야 생사에 자유로운 경계를 성취할 수 있다고 설했다"며 "이러한 돈오의 체득법으로 스님이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은 실상에의 직입으로 이는 정통조사선에 입각해 있다. 철저히 조사선의 입장에서 있었다"고 평가했다.



오용석 원광대 교수도 '혜암성관의 간화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혜암 스님은 중도의 정견과 돈오의 사상을 중심으로 수행의 방법과 원리를 제시했다"며 "사상과 방법을 제시할 때 스스로가 증험한 방식을 중심으로 경전과 조사어를 인용하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집 발간과 함께 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혜암 스님 100주년 기념 사업 일환으로 9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9월 4~5일 해인사에서는 '혜암선사의 선사상과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며, 9월 16일 해인사에서 기념대법회와 유품전시회, 수행처 순례가 각각 진행된다.

한편, 혜암 성관 스님은 1946년 27세에 합천 가야산 해인사에 입산 출가했다. 그 이듬해 봉암사에서 성철 스님 등 20여 수행자들과 함께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를 시작했다. 1993년에 성철 스님의 뒤를 이어 해인총림 제6대 방장을 지냈으며, 1994년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으로 추대됐다. 1999년에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올랐다.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 잘 해라'는 유훈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L.M.B 싱어즈 '불교명절과 재일곡' 발매

중창곡 · 피아노 반주 각각 18곡
불교명절 찬불가 등 다양한 구성
합창단 없는 사찰 교본으로 활용



성악 중창단 L.M.B 싱어즈(대표 황영선)가 찬불가 7집 음반 '불교명절과 재일곡'을 출시했다.

'중창곡(18곡)'과 '피아노 반주(MR 18곡)' 두 장의 CD로 출시된 7집은 USB(36곡)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성도, 열반 등 부처님 일대기에서 비롯된 불교명절을 찬탄한 노래와 불보살을 찬탄한 노래, 방생법회, 칠월칠석, 우란분절, 결혼 축하곡, 천도재 및 49재에 필요한 찬불가 등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 음반은 피아노와 합창단이 없는 사찰에서 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황영선 대표는 "앞으로도 찬불가 창작과 함께 불자는 물론 일반 대중까지 아우를 수 있는 특별한 공연과 위대한 불교음악인을 조명하는 'Buddhist Hymm Maestro' 프로젝트 등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며 "불교음악으로 대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진정한 '가릉빈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성악인과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L.M.B 싱어즈는 1999년 창단한 후 일반 음악회, 군대, 교도소, 병원 등에서 900여 회의 공연을 펼쳐왔다. 오페라, 교성곡, 민요, 가곡, 가요 등의 다양한 레퍼토리로 대중과 함께해온 L.M.B 싱어즈는 행원문화상과 통영 국제 음악제 프린지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으며, 해외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BBS 봄맞아 '힐링 · 소통' 콘텐츠 강화

TV 봄 개편… 4월 13일부터 시행

뇌과학 · 명상강좌 접목
시청자 문자 상담 진행
뉴미디어 콘텐츠 확대

개국 30주년을 맞은 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이 4월 13일부터 BBS TV 채널의 봄 개편을 진행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은 시대에 맞는 힐링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TV, 라디오, 뉴미디어 등 상호 호환 가능한 원 소스 멀티 유즈의 신규 프로그램 편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청자들에게 심리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등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힐링 콘텐츠를 대폭 편성했다.

신규 명상 프로그램으로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제작 지원한 '명상은 과학이다'는 명상 관련 최고 권위자인 뇌과학자, 심리학자, 구도자를 강연자로 초청해 명상에 대한 연구와 임상경험, 체계적인 명상법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방송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목요일 저녁 7시,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일요일 밤 10시이다.

법문을 통해 향기로운 삶을 영위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큰 스님께 듣는 깨달음의 길'은 송담 스님, 청화 스님, 법정 스님의 주옥같은 명언을 화면에 생생하게 담아 시청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줄 것이다. 방송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30분이다.

시청자와 소통을 강화한 신규 프로그램도 편성했다. '혜거 스님의 내 삶을 바꾸는 기도'는 불자들의 고민과 간절한 소원을 문자서비스로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신행 프로그램이다. 4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한다.

또한 뉴미디어에서 인기를 얻었던 불교콘텐츠를 BBS TV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신규 프로그램 '불교가 좋다'는 인기 불교콘텐츠인 '용수 스님의 행복찾기', '일묵 스님의 소참법문',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세계불교는 지금'을 TV용으로 재가공해 방송한다. 방송시간은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금요일 오전 9시, 일요일 밤 10시 30분이다.

이밖에도 불교 중도사상으로 선과 교를 회통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천수경〉 강의와 즉문즉설의 시간을 갖는 '청운 스님의 천수천안', 우리의 문화유산 이야기 '현장탐방, 길 위의 우리역사', 아름다운 길과 풍경을 담은 '영상에세이 길' 등 마음에 힐링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해 시청자를 찾아간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 확산… 세계불교학대회 1년 연기

오는 8월 16~20일 서울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세계불교학회(IABS) 제19회 학술대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년 연기됐다.

세계불교학회 제19회 조직위원장인 조은수 서울대 교수는 4월 13일 공지를 통해 "학회 국제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불확실한 추이로 인해 올해 8월 서울대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19회 대회를 1년 후인 2021년 8월 16~20일에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계불교학회 사무국은 4월 11일 단체 메일 공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변경 △환불 정책 △호텔 예약 등 세부 상황을 공지했다.

사무국 측은 "국제보건상황을 주시하며 오는 9월 경 4차 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76년 창립된 세계불교학회는 유럽, 북미, 아시아의 주요 불교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불교학 학술단체로 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는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열린다.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신성민 기자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수 강 생 귀장술비법 모집안내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